

최봉규 (주)천일 대표 '자랑스런 플라스틱산업인 상'

2010년부터 산업·식품용 생산 포장재 국산화 해외시장 개척도

최봉규(사진 가운데) ㈜천일 대표가 최근 제 10회 플라스틱의 날 기념행사에서 자랑스런 플라스틱산업인 상을 수상했다.

최 대표는 지난 2010년 평동산단에 천일을 설립하고 산업·식품용 포장재를 생산했다. 일반 포장재는 물론 라면 등에 포함되는 액상 소스용 포장재, 전자렌지에 데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 포장재, 야채 신선도를 유지하는 숨쉬는 포장재 등 기능성 포장재도 생산하고 있다.

해외 기술에 의존했던 저온살균용 액상 포장재를 국산화하고 자체생산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천일은 지난 2011년부터 풀무원과 협업해 수성 그래비아 인쇄 기술, 수성 드라이라미네이션 기술, 5-레이어 코어 텀펜 설비 등을 활용해 친환경 포장재를 생산·연구해 왔다.

최근에는 해외시장도 개척해 올해 미국 등에



《(주)천일 제공》

서 300만여 달러의 수출고를 올렸으며, 중·남미 국가와 기술 이전 협약을 진행 중이다.

최 대표는 2005-2020년 광주전남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역임하며 조합원 발전에 기여했다. 현재 (사)중소기업융합광주전남연합회장,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수석부회장 등을 맡아 중소기업 간 교류에도 역할을 하고 있다.

최 대표는 "플라스틱을 업으로 삼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것도 광주업체의 대표로서 뜻깊은 상을 받게 돼 영광스럽다"며 "천일은 국내 플라스틱 포장재 업계에서 가장 독보적으로 앞서가는 회사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더 나아가 세계 최고의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신안농협-효경의료재단, 고령농업인에 보행보조기 전달



《신안농협 제공》

신안농협(조합장 이동치)이 최근 효경의료재단(이사 박석인)과 함께 신안 지역 고령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보행보조기 130대를 전달했다.

보행보조기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활동이 힘들고 농업인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보행보조기가 비싼 탓에 어르신들이 폐 유모차를 재활용함으로써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배려도 담겨 있다.

효경의료재단의 박석인 이사는 "고령농민들에게는 무엇보다 건강이 제일이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후원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신안농협 이동치 조합장은 "농촌 고령화로 활동과 외출이 불편한 농업인이 점차 늘고 있다"며 "이번 보행보조기 전달을 시작으로 고령농업인 및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광주전남적십자, 고려인마을 자가격리쉼터 페인트칠 봉사



《적십자 광주전남지사 제공》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허정)가 최근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마을 자가격리쉼터 외벽에 페인트칠 봉사활동 진행했다.

봉사활동은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희망풍차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이뤄졌으며, RCY 단원 및 적십자 직원 10명이 참석했다.

허정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회장은 "굳은 날씨에도 우리 주변의 이웃을 위해 봉사활동에 참여해준 RCY 단원들에게 무척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내 도움이 필요한 곳에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전남도 서동순 사무관·광주 북구 송창주 주무관 '지방행정의 달인' 선정

전남도 농식품유통과 서동순 사무관과 광주 북구 송창주 주무관이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의 달인'으로 선정됐다.

서동순 사무관은 지난 26일 정부 서울청사별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제11회 지방행정의 달인 시상식'에서 지역경제 분야에서 '디지털 유통의 달인'으로 밝혀 행정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서 사무관은 전남도가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 '남도장터(jmall.kr)'의 품목 다양화, 충성고객 확보 등을 통한 운영 활성화로, 지난해 매출 326억 원을 기록, 2018년(5억4000만원)보다 무려 60배나 높였다. 남도장터 오픈 이래 최대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소상공인과 농어민의 판로 확대 및 소득 증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남도는 시상 첫 회인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사군 공무원을 포함해 총 14명을 배출했으며, 도 본청에서 선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 사무관은 "남도장터가 전남 농수축산물 소비촉진과 생산자 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하도록 회원 100만명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전남 농축수산물에 대한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송창주 주무관은 '모든 문제는 현장에 있고, 해답 또한 현장에 있다'는 신념으로 첨단국가산단과 본촌산단에 입주해 있는 1300여 기업에 대한 지원과 산업단지 활성화에 주력했다.



서동순 사무관



송창주 주무관

특히 15개 산학연관 기관·단체와 업무협약을 맺어 신산업 육성의 구심점을 마련했으며 50여 개의 4차 산업 관련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과 '4차 산업 융합미니플러스트'를 구성·운영하는 등 북구가 4차 산업의 중심 도시로 발돋움 하는데 앞장섰다.

'지방행정의 달인'은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확산을 위한 것이다. 탁월한 아이디어와 높은 업무수준을 바탕으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안부가 매년 선정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TV프로그램 2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2부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50 두 번째 남편(재)	40 맨 인 블랙X 스페셜 50 좋은아침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국가대표 와이프(재)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45 이 맛에 산다	30 살맛나는 오늘
11	0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재)	00 연모(재)	15 헬로키즈 동물교실3 45 주리가킵스3(재)	00 귀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안싸우면 다행이야 스페셜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역에서 길을 찾다 -고흥(재)
1	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캐치 50 나의 삶엔 고향은 (재) 55 더 나은 삶 우리 함께. 당신을 응원합니다 (재)	4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30 KBS광주 열린마당(재)			00 뉴스브리핑
3	35 미니다큐(재)	00 KBS 뉴스타임 10 마카엔로니(재) 30 TV 유치원	20 보보보 좋아 좋아 55 기본 좋은 날(재)	
4	00 사사건건	00 세상의 모든 다큐(재) 50 노래가 좋아(재)	55 5 MBC 뉴스	00 좋은아침 스페셜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50 통합뉴스룸 ET	10 방과 후 슬램 스페셜	00 SBS 오뉴스 35 KBC저녁뉴스 50 미디어대상 시청자와 통하는 TV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05 오매! 전라도	50 시사타터! 따따따(재)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우리말 겨루기	50 빨강 구두	05 두 번째 남편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국가대표 와이프	30 백종원 클래스		30 KBC 8 뉴스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30 연모	00 안싸우면 다행이야	00 생활의 달인
10	00 가요무대 55 더 라이브	45 개는 훌륭하다	30 피의 게임	2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11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12	10 다큐 인사이트(재)	15 스포츠 하이라이트 40 세상의 모든 다큐	10 스포츠 매거진 50 지도의 뒷면 당신이 몰랐던 우리 동네 이야기	00 나이트라인 30 앙코르 내고향 전파 스페셜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30 한국기행(재)	17:00 EBS 뉴스
05:30 클래스 e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20 못 말리는 여린 양 손
05:50 한국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	17:30 우당탕탕 은하인전선(재)
06:1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글로벌 뉴스	17:45 최고! 호기심딱지
07:00 방장고 나라, 코코몽2	12:10 아주 각별한 기행 - 한국을 담다	18:00 생방송 워터지 해결단
07:15 출동! 슈퍼핑크	13:00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19:05 하트가 빛나는 순간(재)
07:30 숲속 배달부 빙빙	14:10 EBS 다큐프라임(재)	19:35 최고의 요리비결 공방
07:45 고고 다이노 공룡탐험대	15:0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19:50 다크영향 길 위의 인생
08:00 당동명 유치원	15:25 클래스 e	20:40 세계테마기행 <오프로드 대장정 -죽음의 길, 볼리비아 용가스>
08:30 엄마 까투리	15:45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21:30 한국기행 <시골 합숙캠 1부 지리산 엄마의 선물>
08:45 방귀대장 뽕뽕이	16:00 마사와 곰	21:50 EBS 다크프라임 <훈비 레이디>
09:00 마법버스 타요	16:15 오드북:이상한 아이들	22:4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09:15 세계의 비밀 수호대 번개맨	16:25 모프의 위대한 모험	23:05 신계속의 맛터사이클 다이어리
09:30 추피와 친구들	16:30 당동명 유치원(재)	
09:40 우리집 유치원	16:50 내 친구 몬터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29일(음 10월 25일 辛巳) ☎ 010-9790-8237

<p>36년생 진행되어 왔던 일에 이변이 나타날 수 있다. 48년생 계획하여 왔던 바를 실행하기에 적합한 때이다. 60년생 상대가 원하는 바에 따라야 의미가 있느니라. 72년생 향심으로 대해야만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84년생 절호의 찬스이니 절대로 놓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96년생 종합적이고 계속적인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29, 85</p>	<p>42년생 단정 짓기에는 애매한 요소들이 있다. 54년생 무의미하다면 빨리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6년생 경원주의 지혜를 빌린다면 전척이 빠르다. 78년생 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매우 불만하리라. 90년생 육식을 가려낼 수 있는 해안이 절실하다. 02년생 상대의 청이나 제안을 원안대로 들어주는 것이 훨씬 더 낫다. 행운의 숫자 : 17, 58</p>
<p>37년생 마음고생이 있던 일은 잘 이루어지리라. 49년생 점점 한기가 사라지면서 따뜻해지리라. 61년생 건너뛴다 가는 망신당하는 수가 있다. 73년생 모르고 있는 것이 백 번 나을 뻔한 상황이다. 85년생 장애물이 제거 되거나 불편한 관계가 해소되는 단계이다. 97년생 식견이 풍부한 이의 조언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숫자 : 00, 96</p>	<p>43년생 관공의 차원에 변화가 생길 것이다. 55년생 다양한 방법을 도출해 내어 전방위적으로 모색하라. 67년생 무심코 방치한다면 더 악화되리라. 79년생 당달아 북받울 수도 있는 판국에 놓인다. 91년생 효율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정점에 놓여있다. 03년생 경이여 남칠 수니 기분이 좋아서 환호성을 지르겠다. 행운의 숫자 : 14, 98</p>
<p>38년생 언행을 가려서 해야 만이 후회하지 않으리라. 50년생 원인과 과정을 잘 따져 보아야 대책이 마련 될 것이다. 62년생 전화위복이요, 새옹지마에 비유할 만하다. 74년생 참으로 기쁜 일이 생기게 되는 날이리라. 86년생 문제점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발전된 도량을 형성하게 되리라. 98년생 더 나은 조건이다. 행운의 숫자 : 24, 78</p>	<p>32년생 이익에 집착한다면 오히려 손해를 보리라. 44년생 요인은 따로 있으니 허방 짚지 말아야 하느니라. 56년생 멀리서부터 상스러운 기운이 비취고 있다고. 68년생 구색을 맞추다 보면 무리할 수도 있음을 알라. 80년생 기본적인 사항을 원칙적으로 수용해야겠다. 92년생 진피양난이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보인다. 행운의 숫자 : 13, 93</p>
<p>39년생 돈의 운용에 따라서 김홍이 좌우 되리라. 51년생 함의에 선택하면 틀림없을 것이다. 63년생 떨어져 있어서 인연이 박하다. 75년생 뜻밖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낭패를 본다. 87년생 불투명한 형국에서 벗어나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인다. 99년생 행운의 문이 열리게 되는 마당이다. 행운의 숫자 : 47, 99</p>	<p>35년생 다각적으로 관련성을 살펴보노라면 대응 방안이 도출될 것이다. 47년생 양자 사이에서 애매한 부분이 보인다. 면 중용의 입장을 취하라. 59년생 성공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71년생 객관성에 근거하여 철저히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83년생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라. 95년생 공동으로 행하는 것도 괜찮다. 행운의 숫자 : 09, 83</p>
<p>40년생 복합적이거나 다기능의 선택이 용이하다. 52년생 한 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 64년생 타인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 해야겠다. 76년생 대상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조율하는 것이 좋다. 88년생 모두가 돈과 결부 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00년생 곧 안정 될 것이니 염려 말라. 행운의 숫자 : 48, 56</p>	<p>34년생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지켜보는 것이 적절하다. 46년생 상호 보완해 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 58년생 제반사 안정된 궤도에 진입하는 듯세로다. 70년생 필요 이상의 것은 번거로운 뿐이니 실질적인 대응이 중요하다. 82년생 추이를 지켜봐야 할 판국이다. 94년생 어차피 해야 할 일이 라면 미루지 말라. 행운의 숫자 : 37, 54</p>
<p>41년생 피급 효과까지 고려하는 것이 좋다. 53년생 미세하 였던 것이 점점 커지고 있다. 65년생 불안전했던 요소가 해소 될 수도 있겠다. 77년생 동일한 곳에 집중했을 때 실효적이다. 89년생 과욕은 망신살을 부르는 법이니 심신을 안정 시켜야 할 일이다. 01년생 예외를 두지 말고 원칙대로 처리 해두라 뒤탈이 없다. 행운의 숫자 : 31, 75</p>	<p>35년생 다각적으로 관련성을 살펴보노라면 대응 방안이 도출될 것이다. 47년생 양자 사이에서 애매한 부분이 보인다. 면 중용의 입장을 취하라. 59년생 성공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71년생 객관성에 근거하여 철저히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83년생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라. 95년생 공동으로 행하는 것도 괜찮다. 행운의 숫자 : 09, 83</p>